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6월 30일  
제2007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8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마르 5.33-34)



〈The Woman with an Issue of Blood〉, James Tissot

## 연중 제13주일 (나해)

제 1 독서 지혜 1,13-15; 2,23-24 |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화답송 시편 30(29)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서 2코린 8,7.9.13-15 |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 줄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복음 마르 5,21-43 <또는 마르 5,21-24.35L-43> |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때에 <sup>21</sup>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sup>22</sup> 아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sup>23</sup>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sup>24</sup>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하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에 <sup>35</sup>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sup>36</sup>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sup>37</sup>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sup>38</sup>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sup>39</sup>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sup>40</sup>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sup>41</sup>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쿴!”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sup>42</sup>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sup>43</sup>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 †복음 묵상

오늘 제2독서는 가난한 이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본성을 지니시며 누구보다도 부유한 분이셨지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가난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넘어 십자가 죽음이라는 비천함까지 껴안으십니다(필리 2,6-8 참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고고하게 홀로 계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시는 인간과 같아지시는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가난함으로 우리의 가난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십니다. 이달 내내 우리가 기억한 그리스도의 성심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시며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나누시는 그 가난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유해지고 총만해집니다.

바로 사도는 ‘가난한 이를 위해서 가난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속성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윤리적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여 줍니다.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이와 분리되어 그들에게 작은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가난한 이를 도와주는 부자 교회’가 아닌 가난한 이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으로 동화되는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입니다(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98항 참조).

(최정훈 바로로 신부)

##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 묵상

##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번 주일 복음(마르 5.21-43 참조)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을 소개하면서, 생명을 향한 개선 행진의 운명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내용, 곧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며,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되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두 명의 주인공, 곧 소녀의 아버지와 병든 여인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믿음 덕분에 소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에는 모두가 허락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불청객, 불법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다가서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곧, 치유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치유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죄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 치유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치유되기 위한, 그분 마음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자격 요건은 치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예수님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서 익명성을 없애 주시며, 살아가고 도전하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말씀 한마디와 한번의 눈길을 통해, 그들이 수많은 고통과 굴욕을 겪은 이후 다시금 걷게 만드십니다...

이 복음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신앙과 새로운 삶의 주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죽은 소녀가 누워있던 집에 들어가신 다음, 그분께서는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던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쫓으시고(40절 참조),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3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이시고, 그분 앞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마치 잠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다른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에 의해 완고해진 마음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물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고한 마음, 굳어지는 마음, 그리고 이를 미라(mummia)가 된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이러한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죄도, 미라가 된 마음(cuore mummificato)도, 예수님께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부의 무한한 자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락에 떨어졌더라도, 그분의 부드럽고 강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우리 각자에게 향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가거라.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라. 일어나라!”

## 교황 주일

한국 교회는 해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이나 이날과 가까운 주일을 교황 주일로 지냅니다.

이날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교황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합니다.

-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직분을 수행하는 교황이 그 직분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 교황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교황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을 봉헌합니다.



## 교황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프란치스코)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우시어 굽어 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말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1 교황 주일 2차 헌금

- 모든 교회는 교황 주일에 교황님의 사목활동을 돕기 위해 특별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 쓰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월례 회의

- 일시 : 6월 30일(일) 오전 11:30 (B-1,2,3)

### 3 병자 영성체

- 일시 : 7월 12일(금)
- 신청 : 정 윌리엄 (703) 598-3316 / 7월 10일(수)

### 4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7월 6일(토) 오전 10:30 (첫 토요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 토요 신심 미사로 토요일 새벽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5 유아세례

- 일시 : 7월 6일(토) 오후 2시
- 7월 유아세례는 **첫째 주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6 2024년 교육부 성경학교 하계 워크숍

- 일시 : 7월 7일(일) 오전 11:30분 - 오후 3시
- 대상 : 성경에 관심 있는 신자 환영
- 신청 : 교육부에 6월 30일(일)까지 신청 (\$20, 점심 제공)
- 문의 : 윤영미 로사리아 (703) 850-2968



### 7 연중 영화 상영(교육부)

- 일시 : 7월 12일(금) 오후 8시 (친교실)
- 영화 제목 : The Mission
- 18세기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들을 개종하려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갈등을 다루며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

### 8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일시 : 8월 9일(금) 오후 3시 - 8시, 8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성당
- 대상 : 현재 K(유치부)부터 7학년까지
- 등록 기간 : 7월 28일(일)까지 하상관 입구, 교무실
- 문의 : 김 세바스티아 (703) 626-1370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9 7월 구역 봉사자 / 단체부 소식

- 7월에는 구역부, 단체부, 봉사자 모임이 없습니다.

### 10 2024-2025년 예산안

- 6월 30일부로 회계가 마감됩니다. 각 단체별로 결산과 예산안을 준비해 주세요.

### 11 사무실 휴무

- 7월 4일(목) 미국 독립 기념일에는 사무실 휴무입니다.

#### ● 하상 한국학교 개강

- 평일에 하상 한국학교(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평일 오후 3시까지 하상관에서
- 레지오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지양해 주세요.

#### ● 미사 전 기도

- 생명 수호를 위한 성요셉께 바치는 기도는 6월 30일(일) 자로 끝나고 이후로는 미사 전에 '교구 황금희년 기도문'을 바칩니다.

#### 공지

####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는 어느 성당이든, 어떤 미사든 상관없습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려진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 고해성사,
  -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 교중미사 예외불헌

06/30 이번 주	스프링필드 구역
07/07 다음 주	프린스 윌리엄 구역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6월 23일 (연중 제12주일)

봉헌금	\$ 7,684.00
교무금	\$ 8,290.00
교무금(신용카드)	\$ 4,060.00
감사 헌금	\$ 50.00
온라인 봉헌	\$ 2,195.00
합계	\$ 22,27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7월 4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7월 5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7월 7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교회미술 2천년 : [제 1강]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

###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 | 교황님의 7월 기도지향 |

#### 아픈 이들에 대한 사목적 돌봄

병자성사를 받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성사로 주님의 힘을 얻고, 모든 이에게 연민과 희망을 더욱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